

『梅園日記(1603~1644)』를 통해 본 예안 사족 金光繼의 관계망*

김명자**

1. 머리말
2. 관계망의 승계와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
3. 鄭述 문하의 출입과 관계망의 확장
4. '張顯光系'와의 교유와 위상 강화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17세기 초반 예안 오천의 광산김씨 金光繼가 20대~60대에 걸쳐 쓴 『梅園日記』를 통해 그의 관계망을 살펴본 것이다. 광산김씨는 혼인, 학문, 경제적 기반의 확대, 의병 활동 등을 통해 향촌에서 명망 있는 사족이 되었다. 이를 물려받은 김광계는 박성·조목 등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히고, 류진·류암·박희무 등과의 교유를 통해 상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경세의 문인들에게까지 관계망을 넓혔다.

김광계와 그의 아우는 의성 지역의 사족과 혼인하였다. 의성에는 장현광 문인들이 많아서 김광계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유했다. 김광계는 성주 출신의 鄭述가 안동 부사로 부임하자, 그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성주지역 사족과 교유하게 되었고, 아들이 성주의 광주이씨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 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4).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자료센터, mjkim0303@hanmail.net

이윤우의 딸과 혼인하여 이 지역 사족과의 관계망이 더욱 확고해졌다.

17세기 전반 상주의 정경세와 인동의 장현광이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연고지가 영남지역 학문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김광계는 1636년 ‘여헌학’의 본산인 인동 부지암서당을 방문하여 장현광을 만났다. 이를 통해 김광계의 학문적 관계망은 인동까지 확대되었다.

즉 김광계는 정구·장현광의 문하에 출입하는 가운데 조목의 문인이었던 아버지의 관계망을 뛰어 넘어 상주·성주·인동지역까지 공간적 관계망을 확장했다. 그는 1630~40년대 예안의 대표적인 사족 기구인 도산서원의 원장을 가장 많이 역임했으며, 병자호란 당시 예안 의병을 앞장서서 조직할 만큼 향촌에서 그의 위상은 한층 강고해졌다.

주제어 : 김광계(金光繼), 매원일기(梅園日記), 관계망, 예안 사족, 광산 김씨, 17세기 전반

1. 머리말

붕당정치 이후 조선 사회는 혈연·학연·지연 등 관계망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개인이 속한 지역, 가문, 학문적 사승관계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관계망을 통해 권력·정보·자원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의 획득은 자신과 가문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사족이 관계망의 형성·확대·강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최근 조선시대사도 관계망에 대한 연구 성과가 학계에 보고되는데, 주로 일기·간찰 등의 자료를 통해 향촌사족의 교유 내용과 장소 등을 다루

었다. 이를 통해 관계망의 형성에 혈연·지연·학연뿐만 아니라 사환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¹⁾ 관계망은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점,²⁾ 교유 장소 별 관계망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³⁾ 등이 밝혀졌다. 사족의 관계망은 중앙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⁴⁾ 이들 연구는 생활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에 기여하였다.

여기서는 『梅園日記(1603~1644)』를 통해 예안 烏川의 梅園 金光繼(1580~1646)의 관계망을 다루고자 한다. 『매원일기』는 김광계가 20대~60대에 걸쳐 쓴 일기로, 모두 1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어 일기를 쓴 햇수는 약 28년이며, 필사본이다.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에서 소장하다가, 2017년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 중이다. 일기에는 김광계와 오천 광산김씨의 일상, 교유 장소와 인물, 공부와 과거 응시, 향촌 활동과 향촌사회의 다양한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다.

16세기 후반부터 예안 사족사회는 ‘퇴계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17세기에는 성리학적 예제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김광계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인식했고, 대응했는지는 그의 관계망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김광계의 관계망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은 광산김씨 예안파의 혼인, 사회 경제적 기반, 의병 활동, 도산서원 원장 역임 등의 현황을 통해 김광계 대에 승계된 관계망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김광계 대의 혼인, 교유, 친족 사이의 유대, 학문적인 사승 관계, 향촌 활동 등을 통해 오천과 향촌에서 김광계가 형성한 관계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광계의 관계망이 어떻게 형성·확대·변화했는지 확인할

-
- 1) 고영진, 「양반관료 류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2009 ;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3, 2015.
 - 2)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金鈴의 교유 양상」, 『朝鮮時代史學報』70, 2014.
 - 3)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歷史研究』24, 2013 ; 김명자 「『河高日錄(1796~1802)』을 통해 본 豊山柳氏 謙巖派의 관계망」, 『大丘史學』124, 2016.
 - 4)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29, 2016.

수 있을 것이다. 김광계의 관계망을 통해 17세기 전반 광산김씨 예안파 및 예안 사족의 관계망의 내용과 특징의 일면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망의 승계와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

1) 광산김씨의 위상과 승계된 관계망

『매월일기』는 1603년부터 시작된다. 일기의 저자 김광계는 23세로, 이미 혼인을 했다. 20대는 본격적인 사회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시기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관계망의 토대 위에 김광계는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 나갔다. 우선 관계망의 토대가 되는 오천 광산김씨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아울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관계망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오천의 광산김씨는 광주의 토성으로 고려 말에 무반으로 진출하여 재경관인이 되었다. 14세 金璉 대부터 문반으로 전향하였으며, 15세기 초 金務가 안동김씨의 사위가 되어 안동으로 이거한 이후 그의 후손들이 안동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 김무는 4남 2녀를 두었는데, 4남 金孝之가 예안 오천에 살던 黃載의 사위가 되어 예안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는 후사가 없어 종손인 淮의 아들 孝廬(1455~1534)를 수양하면서 오천 광산김씨의 가계가 효로의 후손으로 이어졌다.⁵⁾

오천에는 김효로 대부터 세거하게 되었다. 그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 雲巖 金緣(1487~1544)은 문과 급제하고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둘째 濯淸亭 金綏(1491~1555)는 생원이었다. 사위는 순천김씨로 용궁 현감을 역임한 金雨와⁶⁾ 훈도를 지낸 봉화김씨 琴梓이다. 김연의 아들은 後

5) 『光山金氏 禮安派譜』(대경출판사, 1977)

彫堂 金富弼(1516~1577), 挹淸亭 金富儀(1525~1582)이고, 김유의 아들은 山南 金富仁(1512~1584), 養正堂 金富信(1523~1566), 雪月堂 金富倫(1531~1598)이다. 금재의 아들은 日休堂 琴應夾(1526~1596), 勉進齋 琴應燠(1540~1616)인데, 김부필 형제와 금응협 형제가 모두 퇴계 이황에게 수학하여 오천을 ‘군자리’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에도 광산김씨는 가학을 통해 퇴계학을 계승함과 동시에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에게 수학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이 가운데 후조당 계열의 혼인 양상을 살펴보면, 김연은 永川의 창녕 조씨와 혼인했는데, 아버지는 진사 曹致唐이고, 조부는 군수를 역임한 曹末孫이다. 김연의 첫째 아들 김부필은 진주하씨 直長 河就深의 딸을 배우자로 맞이했고, 둘째 아들 김부의는 안동권씨와 혼인했으며, 가평이씨와 재혼했다. 사위는 창원에 거주하는 김해김씨의 현감 金蘭宗, 안동에 거주하는 고성이씨의 參奉 李容, 청송에 거주하는 밀양박씨의 생원 朴思訥이다.

이 밖에도 16세기까지 오천의 광산김씨는 봉화김씨[예안]·순천김씨·영천이씨[예안]·남양홍씨[봉화]·안동권씨[안동·봉화·예안]·평강채씨[예안]·선산김씨[선산]·창원황씨[상주]·상주김씨[상주]·밀양박씨[榮川(영주)] 등 예안·안동·봉화·의성·상주·榮川 등의 유력 사족 가문과 혼인했다.

혼인과 광산김씨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광산김씨 예안과의 분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로는 김효지의 처 황씨로부터 예안의 전답 136.6두락을 물려받았다. 한편 김효로 자녀들의 1550년 하회문기를 보면, 김효로의 전답은 예안 474두락, 풍산 47두락, 남양 13두락, 양주 5두락 이상, 안동 3두락, 미상 120두락이다.

6) 『光山金氏 禮安派譜』(대경출판사, 1977)에는 현감을 역임했다고 하나 다른 자료에는 확인할 수 없어 표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남양과 양주의 전답이 눈에 띄는데, 이는 김효로의 처 양성이씨가 물려받은 것이다. 한편 김부필의 전답은 예안 269두락, 풍산 43두락, 남양 32두락, 임하 18두락, 청송 안덕 69두락, 공주 21두락, 진주 79두락, 사천 144두락, 선산 103두락, 합하여 778두락이다. 예안·안동 풍산·임하·청송·공주의 전답은 김연에게 물려받았고, 진주·사천·선산·남양의 전답은 김부필의 처가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김해의 전답은 예안·안동 풍산·선산·진주·남양·안동·예천 용궁 등에 있는데, 이 가운데 예천 용궁의 전답은 처가와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김광계의 전답은 예안·안동 풍산·선산·남양·예천 용궁·의성·현풍 등이다. 이 가운데 의성과 현풍의 전답은 부인이 친정에서 상속받은 것이다.⁷⁾ 광산김씨는 토지의 개간 및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대했는데, 처가와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도 경제 기반의 확대에 큰 몫을 차지했다.

16세기 중반 이후 예안과 안동지역의 사족사회는 이황의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예안에는 광산김씨·진성이씨·봉화김씨·영천이씨 등이다. 향촌사회의 변화가 광산김씨의 혼인에도 반영되었다. 김부필은 후사가 없어 김부의의 아들 金垓(1555~1593)가 김부필을 잇게 되었는데, 김해는 이황의 조카인 예천 용궁에 사는 李宰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제는 김부필·김부의 등과 이황에게 동문수학한 사이이다. 광산김씨가 진성이씨와 처음으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혼인은 향촌사회에서 정치·경제적 기반 외에 학맥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예안 사족사회는 이황의 고제 가운데 한명인 月川 趙穆(1524~1606)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인 관계망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金中淸·裴龍吉·金澤龍·김해·琴愷 형제 등이 조목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향촌에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7) 김영나, 15-17세기 光山金氏 禮安派의 田畝所由樣相의 변화, 『영남학』15, 2009.

예안지역의 의병 구성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질서를 변화시켰고,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파괴적이고 상징적인 영향을 끼쳤다. 조선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왜군의 공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의병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광계의 아버지 김해는 예안의 의병장이었는데, 그의 의병부대 조직을 보면, 大將 金垓, 都摠使 琴應燾, 整齊將 金澤龍·金圻, 副將 金光道·金光績, 軍糧摠 李詠道, 軍官 金垺·金坪·蔡衍, 掌書 琴憬, 有司 柳誼·朴夢騁 등을 비롯하여 기병 55, 보병 244명, 모두 367명으로 구성되었다.⁸⁾ 김해·김택룡·금경 등 조목의 문인이 조직의 핵심을 맡았다.

의병조직 가운데는 김해·김기·김광도·김광적·김강·김평 등 광산김씨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월천계와 더불어 광산김씨가 향촌사회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광산김씨의 위상은 향촌사회의 대표적인 기구 가운데 하나인 도산서원의 원장 역임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안은 임진왜란 이후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사족의 결집을 도모했기 때문에 도산서원은 명실상부한 사족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다.⁹⁾ <표 1>은 도산서원 건립 이후 원장이 확인 가능한 시기부터 『매월일기』가 끝나는 시기와 비슷한 17세기 전반까지의 원장 역임자이다.¹⁰⁾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47명의 원장 가운데 광산김씨 19명(40%), 봉화김씨 14명(30%), 진성이씨 5명(11%) 순이다. 광산김씨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밖에도 임진왜란 당시 의병에 참여했거나 그 후손이 높은 비중을 차

8) 金龜鉉, 「壬辰倭亂中の 安東義兵」 『郷土慶北』 창간호, 1987, 29쪽.

9) 김형수, 「임진왜란 이후 월천학맥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조선후기 사족과 예교질서』, 소명출판, 2015, 305쪽.

10) 우인수, 「도산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280~281쪽.

지한다. 의병 조직에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원장을 역임한 인물로는 琴應堧·金澤龍·琴愷 등이다. 금응훈은 김효로의 외손자이고, 이영도는 금응훈의 외숙이다. 금경과 금개는 부포에 거주하는 琴蘭秀의 아들이다. 김택룡은 임진왜란 이후 그의 아들과 함께 오천에 가끔씩 출입했다. 광산김씨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했던 성씨들과 혼인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들이 16세기까지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대표하는 성씨에 포함된다.

〈표 1〉 17세기 전반 도산서원 원장

연도	성명	본관	연도	성명	본관	연도	성명	본관
1596	琴應堧	봉화김씨	1616	金坪	광산김씨	1633	李詠道	진성이씨
	琴愷	봉화김씨	1616	李詠道	진성이씨	1634	琴愷	봉화김씨
1598	金圻	광산김씨	1616	李義迪	진성이씨	1634	李詠道	진성이씨
1600	金圻	광산김씨	1618	金垿	광산김씨	1635	金光繼	광산김씨
1602	金澤龍	예안김씨	1619	金澤龍	예안김씨	1637	李詠道	진성이씨
1603	金圻	광산김씨	1622	李詠道	진성이씨	1638	洪有煥	남양홍씨
1604	金澤龍	예안김씨	1623	琴愷	봉화김씨	1640	金光繼	광산김씨
1605	琴應堧	봉화김씨	1624	琴愷	봉화김씨	1641	金光繼	광산김씨
1607	琴應堧	봉화김씨	1625	李有道	진성이씨	1642	金光繼	광산김씨
1609	琴愷	봉화김씨	1626	禁卜業	봉화김씨	1643	金鳴遠	안동김씨
1610	李有道	진성이씨		金光繼	광산김씨	1644	金瓊	순천김씨
	金坪	광산김씨	1627	琴愷	봉화김씨	1645	金確	광산김씨
1612	琴應堧	봉화김씨	1628	金確	광산김씨	1647	金確	광산김씨
1612	琴愷	봉화김씨	1629	金確	광산김씨	1649	金光岳	광산김씨
1614	琴應堧	봉화김씨	1631	金光繼	광산김씨	1650	金確	광산김씨
1615	琴應堧	봉화김씨	1632	金光繼	광산김씨			

2)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

광산김씨는 확대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오천에 후조당·읍청정·탁청정·양정당·설월당·日休堂[금응협] 등의 건물과 枕流亭¹¹⁾·枕洛亭¹²⁾·子開書堂·雲巖寺 등의 정사와 사찰을 건립하여 마을 경관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陵洞·方岑·居仁 등에 齋舍를 건립하여 조상을 추모하는 가운데 성리학적 예제를 실천해 나갔다. 당호의 주인은 후대에 예안파의 파시조로 분과되지만 17세기 초반에는 파별 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마을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뛰어난 인물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를테면 1603년부터 1616년까지 오천은 제천 현감을 역임하여 제천 할아버지로 불리는 금응훈을 중심으로 움직여졌다. 오천에는 봉화금씨도 있었는데, 금재가 김효로의 사위가 되면서 오천에 살게 되었다. 금응훈은 금재의 둘째 아들이다. 김광계 할아버지 향렬은 대부분 사망했고, 아버지 향렬 가운데 학문과 덕망이 높았던 재종숙 北厓 金圻(1547~1603)도 일기를 작성할 당시 사망하여 금응훈이 마을의 존장 역할을 했다.

김광계는 바깥에 출입하거나 금응훈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를 찾아가서 인사드렸다. 개인적인 고민이 생기거나 마을에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금응훈과 함께 의논했다.

金繼燾와 金時獻은 곧 上洛公(金方慶, 1212~1300)의 후손인데, 선친의 분묘가 상락공의 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法司에 정문을 올려 移葬하도록 하려고 한다. 듣고 나니 우려되고 걱정되는 마음 건딜 수 없다. 바로 편지를 가지고 내려가서 제천 할아버지를 뵈었다.¹³⁾

11) 김유의 종고모부인 金萬鈞이 愚岩 위에 세웠으나 세월이 흘러 퇴락하자 김유가 중수했다.

12) 대청 뒤쪽 벽에 ‘雲巖精舍’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13) 1608년 2월 19일.

김해의 묘는 능동에 있는데, 김방경의 묘 바로 아래 있다. 한편 김방경의 묘 위에는 김효로의 묘가 있다. 김방경의 묘는 실전했으나, 1594년 김해의 묘지를 조성하던 중 김방경의 묘지석이 출토되어 그 위치를 알게 되었다. 이후 안동김씨는 광산김씨의 묘지 이전을 요구하는 소지를 올렸다. 榮川에 사는 매부 朴檜茂가 이러한 사실을 한양에서 편지로 알려오자, 김광계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금응훈을 찾아갔던 것이다.

이 시기 마을의 중심 공간은 금응훈의 집인 제천택¹⁴⁾이었다. 금응훈은 이황의 손자이자 금응훈의 생질 李詠道(1559~1637)가 제천택을 방문할 때, 김광계를 부르곤 했다. 안동 와룡 伊溪에 거주하는 權宏(1575~1652) 형제도 제천택에 머물면서 김광계와 자주 만났다. 그 밖에 김광계는 금응훈을 통해 여러 고을의 지방관, 관찰사, 좌수와 별감, 경차관 등을 만나는 가운데 교유의 폭을 넓혔다.

예천 통문과 全景業¹⁵⁾ 씨의 편지를 보니, 전라도 사람 高敬履란 자가 성훈과 정철을 위하여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청하면서 성훈의 志行을 지극하게 칭송하고 또 오현 종사에 관한 일을 논하면서 晦齋[李彦迪]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성훈을 오현의 반열에 올리려고 몰래 우리 회재를 배척하려고 한 것이다. 任叔英도 성훈과 정철을 위하여 소를 올려 운운했다고 한다.¹⁶⁾

1608년 5월 14일 김광계는 제천택에서 예천에서 온 통문과 전경업이 보낸 편지를 보았는데, 제천택은 광산김씨의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때 함께 한 사람은 윗 향렬의 판사 재종숙[金址], 생원 재종숙[金坪], 내성 재종숙[金垓] 및 사수 형[金光道(1563~1622)] 등이었다. 김광계는 아버지가 임진왜란 당시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윗 향렬과의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4) 일기에는 일휴당, 하양택, 자개서당으로 나오기도 함.

15) 전경업은 김령의 둘째 자형으로, 『광산김씨예안파보』에는 全景廻으로 기록되어 있다.

16) 1608년 5월 14일.

한편 김광계는 비슷한 연배 가운데는 金確(1583~1665, 字 而實) 및 琴撥(1573~1642, 字 子開)과 가장 빈번하게 만났다. 일기에서 김확은 700여 회, 금발은 500여회 기록되어 있다. 김확은 김유의 현손으로, 가계는 金紱→金富仁→金堧→金光纘→김확으로 이어진다. 김광계와는 9촌이다. 금발은 금응협의 수양자이다. 생부는 금응훈이지만, 금응훈의 형 금응협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광계가 김확·금발과 어울려 놀거나 자개서당·침락정 등에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지만, 대외적인 활동은 주로 김확과 함께 했다. 병자호란 당시 김광계가 의병장에, 김확이 부장에 추천되었고,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도산서원 원장도 여러 번 역임했다. 김광계에게 김확은 학문과 사회 활동을 함께 하는 동학이자 벗이기도 했다.

김광계는 학문을 익히는데 매우 착실했다. 이른 시기의 스승으로는 大庵 朴愷(1549~1606)과 조목을 언급할 수 있는데, 김광계가 가장 일찍 스승으로 모셨던 인물은 박성이다. 박성의 아버지는 김연의 사위 박사놀이 고, 어머니는 김광계의 증조부 김연의 딸이다. 혈연적 관계망이 학문적 관계망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김광계는 송생[청송]에 살고 있는 박성을 자주 찾아갔다. 1603년 10월 20일~25일, 1605년 1월 8일~12일, 1605년 4월 20일~25일, 1605년 10월 10일~14일 박성을 찾아가 며칠씩 머물며 함께 공부했다. 1605년에는 여러 차례 박성을 찾아갔는데, 박성은 김광계에게 다 음과 같이 당부했다.

이에 (박성이) “내가 늙어서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으니 너를 위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또 타이르기를 “너는 부디 과거에 골몰하지 말고 爲己之學에 진념해야 할 것이다. 과정을 엄격하게 세워 하루에는 모름지기 하루의 공부가 있어야 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벗들과 친하며, 독실하게 실천하고 힘써 배운다면 아마도 일생을 헛되이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너는 『小學』을 더욱 익숙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박성은 김광계를 아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김광계는 박성을 통해

내면의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으며, 평생 힘써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일기에는 김광계가 조목의 문하에 출입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조목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 초반 예안지역의 사족은 조목을 중심으로 학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김해가 조목에게 수학했고, 김광계의 8촌 형 김광찬(1564~1613)은 조목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광찬 형의 장인이 되기 때문이다. 조목이 ‘정신이 혼미’했을 때나¹⁷⁾ 아파 누워 있을 때, 김광계는 금응훈·김평·김령 등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병문안 가기도 했다.

1607년 5월 7일, 김광계는 이황의 고제 가운데 한명이자 안동권의 대표적 학자였던 류성룡의 부고를 듣게 되는데, 그의 문하에 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류성룡의 아들이자 愚伏 鄭經世(1563~1633)와 旅軒 張顯光(1554~1637)의 문인인 修巖 柳軫(1582~1635, 字 季華)과는 매우 가깝게 지냈다. 류진과의 교류는 김광계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었다. 풍산류씨의 柳崑은 김광계의 매부인데, 류암과 류진은 柳子溫의 현손이다. 류암은 류자온→柳公權→柳景深→柳成龜→류암으로 이어지고, 류진은 류자온→柳公綽→柳仲郢→柳成龍→류진으로 이어진다.

김광계는 류암·류진과 하회와 오천을 오가며 함께 공부하거나 일족들과 어울렸다. 특히 1609년 겨울 한양에 과거시험 치러 갈 때 류암·류진과 함께 갔다. 한양에서 김광계는 류진을 통해 대사헌 崔瓘, 감찰 趙廷淳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류성룡과 장현광의 문인인 全湜 및 정경세의 문인 高仁繼·全性之·全克恒 등과도 인사를 나누었다.¹⁸⁾ 김광계는 관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양의 인사들과는 교류가 지속되

17) 1605년 10월 11일.

18) 1609년 10월 27일, 11월 10일.

지 않았지만, 전식·고인계·전성지 등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했다.¹⁹⁾

김광계의 교류에는 박회무도 빼놓을 수 없다. 박회무는 오천과 멀지 않은 榮川에 살았기 때문에 오천에 자주 드나들었다. 이들은 함께 공부도 하고, 집안의 어려운 일도 함께 처리하였다. 김광계는 부친 묘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고 묘 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것을 박회무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 정구가 도산서원을 방문했을 때 김광계는 박회무와 같이 갔고, 병자호란 당시 박회무가 榮川지역의 의병장을 맡는 등 김광계와 학문·사회적 입장을 함께 했다.

이처럼 20대의 김광계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회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박성·조목 등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히고, 김학·류진·류암·박회무 등과 교류하는 가운데 관계망을 형성해 나갔다. 그런데 1605년 박성의 사망, 1606년 조목의 사망, 1607년 류성룡의 사망, 1616년 금응훈의 사망 등은 김광계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징적인 관계망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황 고제의 연이은 사망, 월천계의 정치적 몰락 등과 함께 예안·안동 지역에서 이황 고제의 학문적 명성을 계승하거나 이를 뛰어 넘는 인물이 배출되지 않음으로써 안동권의 학문적 분위기는 다소 위축되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향촌사회가 학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예안과 안동지역의 학문적 위축은 이 지역 사족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김광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19) 1609년 10월 27일, 11월 10일.

3. 鄭述 문하의 출입과 관계망의 확장

1) 鄭述 문하의 출입

김광계는 이른 나이에 박성·조목 등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으며, 이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교유했다. 이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혈연적·학문적 관계망의 연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광계는 寒岡 鄭述의 문하에 출입하는 가운데 학문적 관계망을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갔다. 정구는 김광계의 학문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1607년(선조 40) 정구가 안동부사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1607년 3월 정구가 도산서원을 방문했을 때 김광계는 정구를 처음 만났고, 같은 해 4월 24일~26일 김광계가 안동 관아에 찾아가 정구에게 경서의 어려운 부분을 물어 보면서 본격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었다. 6월 25일~26일 정구가 도산서원에서 안동·예안의 사족과 『심경』을 강독할 때 김광계도 함께 했다.

김광계는 정구에게 단순히 공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정구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에도 동참했다. 정구가 안동·예안 및 인근의 사족에게 이황의 喪禮의 교정을 의뢰했을 때 金義精·李以敬·柳仁植·權紀·金得研·李義遵·金性之·孫淸遠·朴櫓 등과 함께 참여했고,²⁰⁾ 정구가 예안 현감을 통해 예안의 사족에게 『大東韻府群玉』의 필사를 요청했는데, 그때도 김광계가 참여했다.²¹⁾ 김광계는 정구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와의 교류를 지속했고, 정구를 통해 정구의 지인 및 문인들과도 교유했다.

20) 1607년 5월 20일.

21) 1607년 9월 11일. 정구는 이때 필사한 『大東韻府群玉』 1부를 성주로 가져갔으나 나중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표 2〉 정구와 함께 만난 인물

일시	장소	목적	만난 사람
1607. 3	도산서원	정구에게 인사	鄭宗祐, 全士憲, 鄭迪, 裴尙益, 李垔, 鄭唯勳 등
1607. 4.24~26	안동 관아, 향교	정구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	鄭 都事, 安 察訪, 任 參奉[任屹], 安東 判官, 盧景任(풍기 군수), 申亮 등
1607. 윤 6.22~25	안동 관아	정구의 귀향시 인사	安漉, 權春蕙, 李瑤, 蔡夢硯, 權曄[權海美] ²²⁾ , 鄭士毅, 鄭 都事, 李笠, 李膺, 金得研, 權仁甫 [權宏], 權文啓, 金克嶽 3형제, 金中淸, 都諧甫, 徐敏甫, 任 宗甫, 朴 上舍, 吳景虛[吳汝櫟], 朴樅茂[朴季直], 南驥慶
1607. 11.27~29	안동 관아	정구 방문	李埵
1608. 10.8~9	晴川書院	정구 방문	李口, 宋遠器, 裴應袞, 金軸, 鄭鍾 李以直, 郭永禧, 李天封, 李埵, 柳宗直 등
1616. 7. 19~8.2	영천 艾田, 부석사	정구 방문	李口, 李天封, 李垔, 李山+別, 李天封, 李綸, 任參奉[任屹], 金漉, 鄭迪, 琴是詠, 申職, 孫論, 李以直, 柳尙之, 成安義, 金逢吉[金止善], 金應久, 李厚慶, 趙繼韓 등

정구와 함께 만났던 인물 가운데는 權宏·金得研·金中淸·金止善·李笠·任屹 등 이미 알고 있던 인물도 있지만 정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구의 친인척을 포함한 문인 및 지역의 명사들도 있었다.²³⁾ 1607년 11월 27일, 김광계는 안동 관아를 방문하여 정구를 만났는데, 그때 李埵(1557~?)도 이틀 연달아 만났다. 이육은 1588년 문과 급제했으며 정구의 문인이었다. 1608년 김광계가 청천서원에서 정구를 방문했을 때 이육도 만났다. 김광계는 청천서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구의 문인 李天封의 집

22) 權曄(1552~1630)가 1601년 문과 급제한 이후 호조좌랑·예조좌랑 등을 거쳐 海美 縣監을 지내서 붙여진 이름이다.

23) 일기에는 이름을 표기할 때 성명·字·號·관직명 등을 혼재하여 사용했으며, 자·호·관직명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표 2>를 작성하였다.

에 묵었는데, 정구가 중풍 치료를 위해 1616년 7월 18일부터 8월 초순까지 榮川 艾田 椒井에서 묵욕하고 부석사에서 몸조리를 할 때도 이천봉을 만났다. 정구와 맺어진 인연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정구가 부석사에 머물 때 영남의 여러 인사들이 이곳을 다녀갔으며, 그 때 김광계는 琴是詠, 申瓚, 孫禴, 광주 목사를 역임한 成安義, 榮川 수령 趙纘韓, 그 밖에 榮川에서 온 金止善, 金鑿[字 應久], 靈山[창녕]에서 온 李厚慶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김광계는 정구를 통해 기존의 관계망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는 기회를 만들었다.

2) 혼인을 통한 관계망의 확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6세기까지 오천 광산김씨의 혼인을 통한 관계망의 지역적 기반은 예안·안동·예천·榮川·청송 등이었다. 김광계의 여러 남매 가운데 본인은 의성의 광주이씨 생원 李山岳의 딸과 혼인했고, 첫째 아우 光實(1585~1651)은 예천 용궁의 여주이씨 李潤壽의 딸을 배우자로 맞이했다. 둘째 아우 光輔(1587~1634)는 榮川의 옥천전씨 全時憲의 딸과 혼인했다. 매부 반남박씨 박회무와 풍산류씨 류암은 일기가 시작되는 1603년에 이미 혼인을 한 상태이고, 일기에는 영해의 재령이씨 李時明(1590~1674)이 매부가 되는 것과 막내 光岳(1591~1678)이 의성에 사는 영천이씨 李民弘의 딸과 혼인하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혼례를 행하였다. 동네 친족들이 모두 보러왔다. 繞客은 李 橫城[李庭檜], 城主 [安耜壽], 李 和叔[李時淸]이고, 요객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천 할아버지, 청송 아재, 생원 재종숙이다. 성주는 바로가고, 이 횡성은 밤중에 바빠 갔다.

이것은 1607년 11월 12일 김광계의 누이와 이시명의 혼례에 대한 기사이다. 혼례를 치를 때 진성이씨의 이정회(1542~1613), 예안 현감 안담수,

이시명의 형인 李時淸이 신랑을 데리고 왔다가 현감은 바로 돌아가고 이 정회는 밤에 온계로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이시명은 현감을 역임한 李涵의 아들로, 광산김씨는 재령이씨와 처음으로 혼인했다. 김광계의 조카 怡도 이시명의 손녀와 혼인했다. 한편 김광실의 둘째 아들 金畝은 할아버지를 이어 진성이씨와 혼인을 했고, 재혼은 전주류씨와 했다. 김기의 둘째 아들 광업도 전주류씨 柳成春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고, 김평의 둘째 광일도 柳守潛의 딸과 혼인했다. 이는 광산김씨가 17세기 후반 이후 퇴계학과 내에서 안동 임하의 의성김씨와 전주류씨, 영해의 재령이씨 등이 중심인 鶴峯[金誠一]系 혹은 ‘葛庵[李玄逸]學團’과 연망을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김광계의 아우 광약의 혼인 날짜는 1607년 12월 19일로 정해졌는데, 아내인 이민희의 딸이다.²⁴⁾ 이민희의 아버지는 관찰사를 역임한 李光俊이다. 이민희는 1600년(선조 33) 문과 급제했고, 영천 군수, 동래 부사, 호조 참의, 형조 참판, 경주 부윤을 역임하는 등 의성의 명망 있는 사족에 속했다. 김광계와 김광약의 처가가 의성이어서 이들은 빈번하게 의성에 드나들었고, 이를 계기로 의성 현감 朴夢琚·李士遜·金九鼎과 의성 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인 아주신씨의 申佺 및 그의 아들 申達道[字 亨甫]·申悅道[字 晉甫] 등과 교유하게 되었다. 신달도와 신열도는 정구와 장현광의 문하에 출입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장현광의 핵심 문인이 된다. 1603년 장현광이 의성 현감을 역임하는데 의성 지역의 문풍을 진작시켰고, 의성지역의 사족은 대부분 장현광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김광계는 아들이 없어 아우 광실의 셋째 아들 □으로 후사를 잇게 했다. 립은 성주의 광주이씨 李潤雨(1569~1634)의 딸과 혼인했다. 이윤우는 1606년(선조 39) 급제한 이후 예조 정랑, 사간원 정언,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했고, 정구에게 수학했으며, 김령 및 鶴沙 金應祖(1587~1667, 字

24) 1607년 12월 10일.

孝徵) 등과 더불어 17세기 초반 영남지역의 공문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김광계의 첫째 아우의 셋째 아들 石+先 역시 이윤우의 손자와 혼인하여 광산김씨는 광주이씨와 중첩 혼인을 했다.

이로써 김광계 당대에 혼인으로 안동권의 동쪽으로는 영해까지 공간적 관계망을 넓혔고, 안동권의 남서부로는 의성과 성주까지 공간적 관계망을 확대했다.²⁵⁾ 특히 성주지역의 혈연적 관계망 구축에는 김광계가 정구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형성한 관계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향촌 사족 및 일족과의 결속

김광계는 혼인과 학문 활동을 통해 성주 지역까지 공간적 관계망을 확장했지만, 예안·안동지역 사족들과의 교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류성룡의 문인이자 悠然堂 金大賢의 아들인 忘窩 金榮祖(1577~1648, 字 孝仲), 深谷 金慶祖(1583~1645, 字 孝吉), 鶴沙 金應祖(1587~1667, 字 孝徵), 鶴陰 金念祖(1589~1652, 字 孝修) 형제, 權春蘭의 문인으로 안동 와룡 이계에 사는 權宏(1575~1652, 字 仁甫), 학봉 김성일의 조카 金是楹(1598~1669, 字 子瞻) 등이다. 김영조 형제는 榮川과 안동 풍산에 거주했는데, 이들은 대과 혹은 소과에 합격했고, 관찰사·장령 등의 관직도 역임하는 등 명성이 높았다. 김광계는 김확·류진·권굉·김시온 및 김영조 형제를 비롯한 비슷한 연배들과 오천, 하회, 榮川, 廬江書院, 병산서원, 자개서당, 봉정사 등에서 만나 공부하거나 향촌 문제를 논의하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금응훈의 사망 이후 오천의 연장자 그룹은 좌수 재종숙 김호(1534~1616), 판사 재종숙 김지(1551~1620), 생원 재종숙 김평(1563~1617), 내성

25) 한편 『河窩日錄』에서 19세기 안동지역의 혼인은 특정 성씨와 집중화·공고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김명자, 앞의 논문, 2016)

재종숙 김령(1577~1641) 등이었다. 그런데 재종숙들도 금응훈과 사망 시기가 비슷하여, 1620년대 전후부터 김령이 존장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문과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주서를 역임했고, 학문과 덕망으로 영남 사족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두문불출하며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했고, 김광계와 김확이 광산김씨를 대표하여 향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시기 오친의 중심적인 공간도 자연스럽게 탁청정[상주댁]과 설월당으로 옮겨갔다. 일기에는 탁청정이 50여회 이상 기록되었으며, 친족 단위의 모임이 가장 많았던 곳이다. ‘논의할 일’이 있거나 ‘상의할 일’로 탁청정을 가기도 했고, 동네 친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특히 김확 형제를 만나러 자주 갔다. 설월당은 김부륜의 아들 김령의 집으로, 일기에 20여회 이상의 기록이 나온다. 설월당 역시 마을 혹은 향촌에 일이 있거나 외부의 손님이 올 때 방문하곤 했다. 유사를 개정하는 일로,²⁶⁾ 혹은 상의할 일이 있어 동네 친지들이 모이기도 했다. 김령이 마을의 존장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1628년 이후에는 설월당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이 역시 김령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광계는 탁청정·설월당·읍청정·양정당 등을 드나드는 가운데 제사, 동성끼리의 모임과 놀이, 마을의 여러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혈연적인 관계를 돈독히 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관계망을 확대했다. 1627년 1월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 영남 호소사가 예안지역 의병장으로 김광계, 부장으로 김확을 추천했다. 김광계는 선고의 묘를 이전하는 일로 總服 중이어서 의병장을 사임했지만,²⁷⁾ 그가 예안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26) 1616년 6월 22일.

27) 1627년 2월 29일.

4. ‘張顯光系’와의 교유와 위상 강화

1) ‘張顯光系’와의 교유

17세기 초반 이황의 고제 가운데 조목·류성룡 등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퇴계학파의 근거지였던 예안·안동 지역의 학문이 침체하는 대신 성주의 정구를 거쳐 17세기 전반에는 상주의 정경세와 인동의 장현광이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의 연고지인 상주·성주·인

〈표 3〉 1636년 4월 20일~5월 20일 김광계의 여정

일자	장소	만남 사람
4월 20일	一直縣	權省吾, 全□久
4월 21일	北今谷村	李建
4월 22일	仁同 읍내	張應一[張經叔], 張泰來[張慶遇], 朴愷 등
4월 23일	潘潛村, 梅院村	張乃範, 李道昌, 李道長 등
4월 24일	上枝	金粲, 尹敏吉 등
4월 25일	花園縣, 論公	朴玃衢, 郭以昌 형제, 朴東衡, 朴振立
4월 26일~ 5월 4일	率禮	遜志, 郭維翰 형제, 郭子固[郭衛國], 郭希天, 郭岬, 郭慶覃, 朴振立, 朴東奭, 郭岬, 李珀, 郭慶覃 형제 등
5월 8일	上枝	尹敏吉
5월 9일	不知巖書堂	張應一, 朴愷, 朴愷, 金慶長, 張宗亨 등
5월 10일~ 11일	仁同 읍내	申進甫, 羅允素[仁州府使], 李秀俊 등
5월 12일~ 13일	不知巖書堂, 吳山書院	金慶長, 金德承, 張慶達, 申悅道[申進甫], 朴愷, 張宗亨, 仲孝 등
5월 14일~ 21일	海平, 水村, 餘子甲村	韓世龍[開城府], 申悅道[申進甫], 通彥, 金德承, 朴孝述, 盧世謙 형제 등
5월 22일~ 23일	軍威, 長洞, 一直縣	柳元慶[생질], 李廷彬

동 등이 영남학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다.²⁸⁾

김광계는 의성의 아주신씨·영천이씨·안동김씨 등과 교유망을 형성했는데, 이들은 장현광이 의성 현감을 역임할 당시 그의 문하에 출입했다.

일기에는 김광계가 의성 현감 장현광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1626년 7월 김광계의 8촌 형 金光道(1604~1677, 字 士修)가 都會의 製述로 가야산에 갔다가 장현광이 김광계에게 쓴 편지를 전해준 사실로 미루어 이전부터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36년 4월 20일~5월 23일 김광계는 장현광이 거주하는 인동과 ‘여헌학’의 본산인 不知巖書堂을 방문하는데 이는 김광계의 학문적 관계망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언급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김광계의 학문적 관계망이 ‘여헌계’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헌계’가 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장현광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의성→인동→성주→현풍 등지를 거쳤는데, 이는 기존의 관계망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여정이기도 했다.

김광계는 장현광을 만난 소회 및 부지암서당과 그 주변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旅軒 선생이 선산에서 배를 타고 와서 不知巖書堂에 머무른다는 것을 듣고 강가 누각에서 인사를 하였는데, 덕스러운 풍모가 크고 깊으며 풍채가 위엄이 있어서, 바라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취하여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 사당은 바로 선생이 학문을 닦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앞에는 큰 강이 달아있고 멀리 넓은 들을 안고 있으며, 長林이 짙게 드리워지고 넓은 들이 아득하며, 집 뒤로는 큰 대나무가 수천 그루로,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이다.

김광계는 장현광에 대해 존모하는 마음과 장현광의 부지암서당에 대

28)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7.

한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성주[현재 칠곡]의 梅院村에서는 사돈댁을 방문하여 이윤우의 아들 李道昌과 李道長을 만났다. 張乃範·申悅道·張泰來·李秀俊 등 장현광의 핵심 문인들과도 교류했다. 장현광의 아들 張應一은 10년 만에 만났고, 장내범도 10여년 만에 만났다고 했다. 그 밖에 인동 부사 나운소, 개성에서 장현광을 보러 온 韓世龍을 비롯하여 몇몇 께씨들과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16세기 중후반 광산김씨 예안파가 이황의 직전 제자를 배출할 당시에는 학문적인 상이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17세기 전반에는 광산김씨 예안파 내에서 정치·학문적인 사안 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설월당 김부륜의 아들 김령의 경우 조목의 도산서원 종향에 반대했지만, 양정당 김부신의 아들 김평은 조목의 종향을 지지했다.²⁹⁾ 김광계는 장현광을 방문하여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김령은 1639년 장현광을 오산서원의 길재의 사당에 배향하고자 한다는 仁同의 통문에 대해 ‘사사로운 정으로 묘우에 제향하는 폐습’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³⁰⁾ 장현광의 문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광계는 장현광과 그의 문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학문적인 관계망을 영남 서남부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김해가 조목의 문인이어서 김광계 역시 월천계로 언급할 수 있지만,³¹⁾ 그는 특정 정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스승을 모시는 가운데 유연하게 학문적 관계망을 넓혀 나갔다.

2) 김광계의 위상 강화

17세기 전반 오천과 향촌에서 김광계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러

29)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北岳史論』8, 2001, 47~48쪽, 64~65쪽.

30) 1639년 10월 27일 (『국역 계암일록』6, 347~348쪽)

31) 『月川先生門人錄』(필사본, 光山金氏 後彫堂 所藏)

한 사실은 도산서원 원장의 역임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1598·1600·1603년에는 김기가, 1610년에는 김평이, 1618년에는 김령이, 1626·1631·1632·1635·1640·1641·1642년에는 김광계가, 1628·1629·1645·1647년 김확이 원장이었으며, 김광계는 1630~40년대 원장을 가장 많이 역임했다. 1630년대 이후 김광계는 김확과 더불어 광산김씨와 예안의 향촌 사회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김광계는 1636년 12월 19일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같은 달 23일 남한산성에서 온 有旨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영남에서의병을 일으키고 군량을 내어 의병을 도와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광계는 김령을 비롯한 오천의 여러 어른들을 만난 이후 김령의 맏아들 金耀亨(字 伯達), 김평의 아들 金光遂(字 孟堅)와 함께 향교에서 回文을 내어 의병에 관한 일을 예안의 사족과 의논하고자 했다. 25일 예안 향교에 80여명이 모여 의병을 꾸렸는데, 김광계가 대장, 김확이 부장이 되었다. 영남의 다른 지역에도 의병 조직이 속속 꾸려졌으며, 상주에는 전식, 안동에는 李弘祚, 滎川에는 박회무, 봉화에는 趙以周가 의병장이 되었다. 김광계는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의병을 조직하고 영남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이 당시 오천에서 김광계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침락정이다. 김광계는 오천에서 공부할 때 침락정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것은 1608년 김광계가 지은 것이다. 침락정을 枕洛書齋 혹은 江齋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광계는 침락정을 찾아온 인사들과 학문을 토론하거나 강학하기도 했고, 제사를 지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오고 가는 길에 쉬거나 일정 기간 묵기도 했다. 이곳의 경치가 좋아 예안의 현감들이 와서 와보고 싶어 했으며, 벗들도 이곳에 머물길 김광계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침락정과 몇 백 보 떨어진 곳에 운암사가 있다. 이것은 증조부 김연이 건립했다가 임진왜란 당시 불타서 1606년 김광계가 중창한 것이다.³²⁾ 김

광계는 이곳에서도 여러 날 머물며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³³⁾ 침락정 가까이 물가에는 비암[반석]이 있는데, 김광계는 여기서 오천의 친족 및 벗들과 놀거나, 예안 관아와 향교에 오갈 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김광계가 20~30대에는 주로 제천택 혹은 탁청정으로 찾아오는 외부의 사람들과 교류했으나, 40~50대에는 외부 인사가 김광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김광계가 오천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김광계는 오천 마을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마을의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장섰다. 그는 김확과 함께 김부필·김부륜·김기 등 선조들이 제정한 동약과 향약을 재정비했다. 1634년에는 윤 8월에는 친족들과 향약을 고쳤고, 1635년 12월에는 역동서원에서 향약의 조목을 수정·정리했다. 1642년 11월에는 식량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동약을 정비하기도 했다.³⁴⁾

김광계의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가깝게는 아우와 생질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그를 찾아왔다. 현풍의 郭維翰 형제, 李叔發, 具思恭, 李崑, 李長亨, 李時謙, 裴漢章, 辛懿方, 안동 판관을 역임했던 辛暲의 아들 辛懿方, 沈光洙, 李炳然의 아들 李曉 등이 김광계를 찾아왔다.

32) 雲巖寺는 예안현 남쪽 7리 魚吞山 위에 있다.(『宣城誌』佛宇條)

33) 김광계가 공부한 장소로는 용수사도 있는데, 이는 오천에서 몇 리 떨어져 있다. 공부를 하거나 일족의 모임을 갖거나 예안 현감을 비롯한 벗들과의 모임 장소로 이용했다.

34) 1634년 윤8월 17일, 12월 9일~11일, 1642년 11월 20일, 1643년 7월 27일, 1643년 8월 4일. 오천 광산김씨와 김광계의 향약·동약의 작성과 재정비에 대해서는 박종천의 「조선시대 예안 광산김씨의 친족활동-계회와 성회를 중심으로-」(『국학연구』30, 2016)과 「조선중기 광산김씨 예안과의 의례 실천과 일상생활-『계암일록』과 『매원일기』를 중심으로-」(『국학연구』33, 2017)를 참고할 수 있다.

5. 맺음말

16세기 후반부터 예안·안동 사족사회는 ‘퇴계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퇴계 이황과 그의 고제 월천 조목,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등의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어 학문이 꽃피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들이 앞장서서 성리학적 예제를 실천해 나갔다. 그런데 17세기 초반 퇴계 고제 그룹의 연이은 사망으로 이 지역의 학문적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안 오천 김광계의 관계망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해보았다. 김광계가 20대~60대에 걸쳐 쓴 『매월일기』에서 많을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천의 후조당·읍청정·탁청정·양정당·설월당·일휴당 등을 중심으로 한 친족과 외부 인사들과의 교류이다. 김광계는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제사, 유희, 친교, 마을의 공동이익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광산김씨와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지방관을 비롯한 향촌의 여러 사람들과 매우 자주 만났다. 김광계의 일상은 교유의 연속이었다.

김광계의 일상을 통해 드러난 교류 내용과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계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20대라고 할 있다. 광산김씨는 혼인, 학문, 경제적 기반의 확대, 의병 활동 등을 통해 향촌에서 명망 있는 사족이 되었다. 이를 물려받은 김광계는 박성·조목 등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히고, 류진·류암·박희무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정경세의 문인들에게까지 관계망을 넓혔다.

김광계는 의성의 광주이씨와 혼인했는데, 막내아우 광약도 의성의 대표적 사족 이민희의 딸을 배우자로 맞이했다. 의성에는 장현광 문인들이 많은데, 김광계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교류했다. 김광계는 성주 출신의 정

구가 안동 부사로 부임하면서 그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성주지역 사족과의 교류하게 되었고, 아들 럽이 성주의 광주이씨 이운우의 딸과 혼인하여 이 지역 사족과의 관계망이 더욱 확고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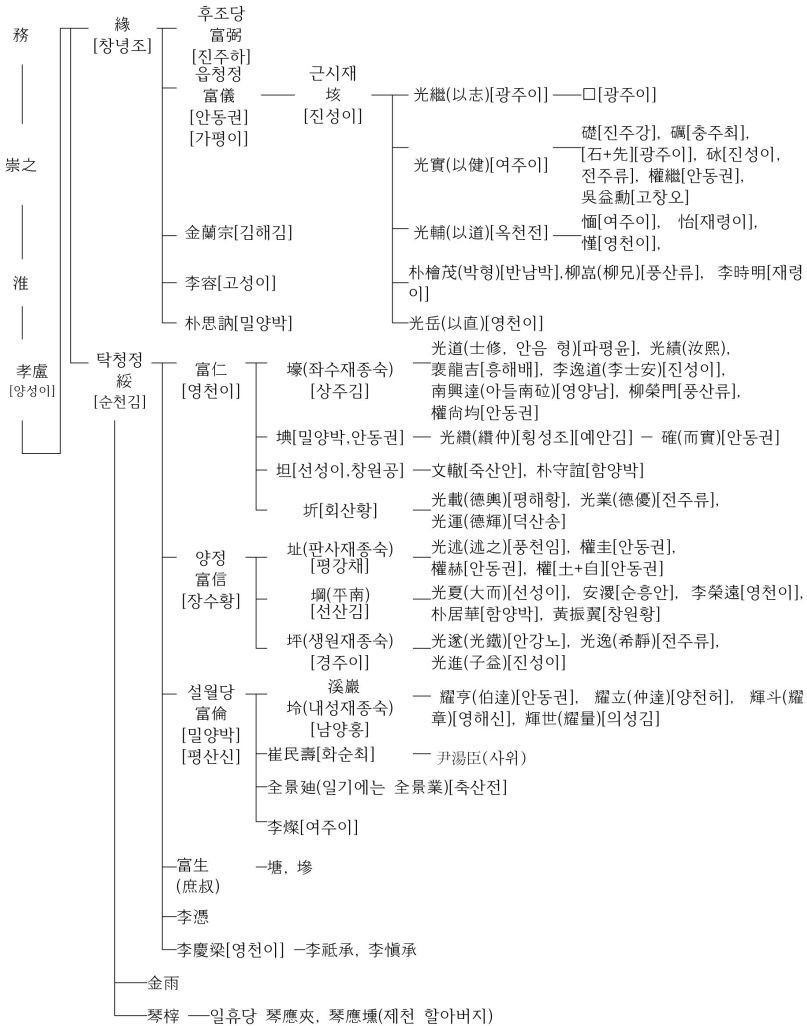
17세기 전반 상주의 정경세와 인동의 장현광이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연고지가 영남지역 학문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김광계는 1636년 ‘여헌학’의 본산인 인동 부지암서당을 방문하여 장현광을 만났다. 이는 김광계의 학문적 관계망을 인동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여헌계’의 관계망이 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광계는 1630~1640년대 예안의 대표적인 사족 기구인 도산서원의 원장을 가장 많이 역임했고, 병자호란 당시 예안 의병을 앞장서서 조직할 만큼 향촌에서의 위상이 높았다. 일휴당·탁청정·설월당을 통해 오천을 방문하던 인사들과 교류가 줄어들고 1630년대 이후에는 김광계를 직접 방문하는 인물들이 많아졌다. 그 가운데는 김광계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젊은 인재들도 있었다.

김광계는 정구·장현광의 문하에 출입하는 가운데 조목의 문인이었던 아버지의 관계망을 뛰어 넘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확장했다. 공간적으로는 영해·상주·성주·인동 등지로 관계망으로 넓혔으며, 학문과 덕망으로 향촌에서의 위상도 확고해졌다. 다만 17세기 중후반 이후 오천 내에서 과별·학문적 분기가 드러나고 문중 활동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김광계의 관계망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계승·확대되었는지, 생존을 위한 새로운 관계망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기겠다.

■ 논문투고일자: 2017.10.10. 심사완료일자: 2017.11.12. 게재확정일자: 2017.11.15.

<부표> 『매원일기』를 중심으로 한 光山金氏 禮安派의 世系와 훈인³⁵⁾



35) 『光山金氏 禮安派譜』(대경출판사, 1977), 『매원일기』 참고.

[참고문헌]

- 『光山金氏 禮安派譜』(대경출판사, 1977)
- 『국역 계암일록』(한국국학진흥원, 2013)
- 『梅園日記』(필사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月川先生門人錄』(필사본, 光山金氏 後彫堂 所藏)
- 『宣城誌』(필사본, 안동대학교 所藏)
- 고영진, 「양반관료 류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2009.
- 金龜鉉, 「壬辰倭亂中の 安東義兵」 『郷土慶北』 창간호, 1987.
-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29, 2016.
-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歷史研究』24, 2013 ; 김명자 「『河窩日錄(1796~1802)』을 통해 본 豊山柳氏 謙巖派의 관계망」, 『大丘史學』124, 2016.
- 김영나, 「15-17세기 光山金氏 禮安派의 田畚所由樣相의 변화」, 『영남학』15, 2009.
-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金垓의 교유 양상」, 『朝鮮時代史學報』70, 2014.
-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7.
- 김형수, 「임진왜란 이후 월천학맥과 예안지역사회의 재건」 『조선후기 사족과 예교질서』, 소명출판, 2015.
- 박종천, 「조선시대 예안 광산김씨의 친족활동-계회契會와 성회姓會를 중심으로-」, 『국학연구』30, 2016.
- 박종천, 「조선중기 광산김씨 예안파의 의례 실천과 일상생활-『계암일록』과 『매원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33, 2017.
- 우인수, 「도산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 이상현,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北岳史論』8, 2001.
-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3, 2015.

Learned Man of Yean Kim, Gwang-gye (金光繼)'s
network investigated through 『MaewonDiary(梅園日記)(1603~1644)』

Kim, Myungja

[Abstract]

This writing examined Kim, Gwang-gye, Gwangsan Kims from Yean Ocheon, through 『*MaewonDiary*(梅園日記)』 written by him in his 20s to 60s in the opening years of the 17th century. Gwangsan Kims became the learned men of reputation in the country through marriages, study, economic bases, and righteous army activities. Kim, Gwang-gye who inherited this from his ancestor studied by visiting Park, Seong and Cho, Mok and expanded his network to Jeong, Gyeong-se's writers who were active with Sangju as the center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Ryu, Jin, Ryu, Am, and Park, Hoi-mu.

Kim, Gwang-gye and his younger brother got married to women of distinguished families in Euiseong. There are many writers of Jang, Hyeon-gwang and Kim, Gwang-gye naturally associated with them. When Jeong, Gu who was from Seongju started for his new post as Andong Busa, Kim, Gwang-gye became his pupil. This led him to associate with learned men of Seongju and his network with them got to be firmer as his son got married to a daughter of Lee, Yun-wu, Gwangju Lees in Seongju.

As Jeong, Gyeong-se from Sangju and Jang, Hyeon-gwang from Andong grew as representative scholars of Yeongnam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eir hometown got to emerge as the seat of learning in Yeongnam. Kim, Gwang-gye met Jang, Hyeon-gwang by visiting Indong Bujiamseodang, home to 'Yeonheon Philosophy' in 1636. Kim, Gwang-gye's academic network

expanded to Indong through this.

In other words, Kim, Gwang-gye expanded his spatial network to Sangju, Seongju, and Indong beyond the network of his father who was the writer of Jomok while he became a pupil of Jeong, Gu and Jang, Hyeongwang. In addition, he most served as the director of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learned men of Yean in 1630 to 1640 and his status got to be firmer in the country as he took the initiative in organizing a loyal army of Yean in the Manchu war of 1636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 mjkim0303@hanmail.net)

Key words : Kim, Gwang-gye(김광계), *MaewonDiary*(梅園日記), network(관계망), Learned Man of Yean(예안 사족), Gwangsan Kim Family(광산 김씨),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17세기 전반)